

신행

한국불교
신행 70년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신행이란 무엇인가

신행(信行)은 '불교의 신념체계를 삶속에서 실천하는 불자의 제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불자의 신념체계와 신행활동은 초기경전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아함경에서는 이를 사불과정(四不壞淨)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불과정이란 불법승 삼보와 계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즉 불자의 신행은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원천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공덕이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믿음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불교적 방법은 여섯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념(六念)이다. 육념은 불법승(佛法僧) 삼보와 계사천(戒施天) 등 여섯 가지를 믿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내적인 신앙의 측면과 외적인 실천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내적으로 확고한 신앙심을 갖추면서 동시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진리를 깨우치고, 화합하는 사부대중의 일원이 되는 것을 서원하며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육념의 염불(念佛), 염법(念法), 염승(念僧)의 실천 원리를 토대로 현대불교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신행방법이 창안되었다. 염불은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정근과 같은 신행방법으로 다양한 염불신행단체를 만들어냈다. 염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축하여 핵심을 염하는 것으로 오미나반메추,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마하반야바라밀 등을 주로 신행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을 염하는 것은 좌선을 통한 선정의 체현, 정견의 성취를 통한 지혜의 완성 등으로도 확대되었다. 그리고 염승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등과 같이 보살의 명호를 염하는 신행방법으로 다양화되었다.

다만 우리나라 불자들은 관음과 지장 등을 염하는 것은 염승이 아니라 염불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실제 활동했던 스님들을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소 문화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모든 제불보살은 석가모니부처님의 화신불로 수용하고 염할 때는 염불이 된다. 반면에 개별 보살의 공덕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염승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 불자들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별이 없이 보편적으로 화신불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대부분 염불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신행활동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은 사찰에서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신행활동은 사찰 내에서의 활동영역과 대 사회적 실천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찰 내에서의 활동은 주로 기도 및 법회 참석, 천도제, 수륙제 등

재의식 봉행 등 순수 불교적 신앙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행활동은 스님들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도들의 자율적 영역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사찰 밖에서의 신행활동은 사찰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이들 중에는 스님들이 지도하는 신행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불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들도 많다.

신행, 변화와 틀을 잡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이래로 지속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주로 신앙적 측면을 중요시하면서 각종 재의식과 법회에 참여하는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록재를 비롯하여 그 밖의 대사회적 실천운동이 전혀

일제 시대 신행활동 매우 소극적

1960년대 이후 신행 본격 '기지개'

전통·신흥종단 분화... 신행에도 영향

초하루·보름 법회서 일요법회 도입

참선·염불·간경 등 수행 중심 활동

불교대학 설립... 교육화된 신도 양성

기도·기복에서 설법·실천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등 新 신행 트렌드 부상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는 역할정책의 영향으로 그것마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불자들의 사찰 내 신행 활동조차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제반 환경적 요인으로 불자들은 독립운동을 선도하는 스님들을 몰래 돕는 것으로 사회적 실천을 대신하였다.

광복 이후 불교계는 1962년 대한불교 조계종단이 단일종단으로 출범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얼마 후 한국불교 태고종이 등록되고 이어서 천태종, 진각종 등 수 다수의 종단이 설립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종단분열은 전통 종단과 신흥 종단의 분화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불자의 신행활동 분화로 이어졌다. 태고종은 천도제, 영산재 등 재의식 중심의 신행활동 참여가 확대되었고, 천태종은 나무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염불신행, 진각종, 총지종, 진언종 계열은 오미나반메추 중심의 염불신행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렇지만 조계종은 회통불교의 성격을 지니면서 참선, 기도, 법회, 염불, 주력, 간경 등과 같은 다양한 신행방법을 모두 흡수하는 전통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종단을 떠나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



108산사 순례단이 2007년 관측사를 참배하고 있다. 선록 혜자 스님이 시작한 108산사 순례는 한국불교 '순례' 문화를 변화시켰으며, 도농 상생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문화·군 포교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안국선원 신도들의 수행 정진 모습. 안국선원은 수행 중심으로 신행 프로그램을 정착시킨 대표적 도량이다.



불광사 새 법당 상량식. 불광사는 1974년 불광법회를 창립해 일요법회를 만들어 정착시켰고 신도들의 사찰 운영 참여도 열었다.

고 활동하는 신행단체들도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정토회는 실천 수행과 각종 구호활동을 병행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구축하였다. 정토회는 초기에 재가불자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일부 구상원이 출가하면서 출세가 공동체로 발전하였다.

광복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불교계는 종단의 분화와 더불어 사찰 공동체의 형성과 독자적인 재가불자 신행단체의 형성 등이 혼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왜색불교 척결이라는 정화과정을 거치면서 각 종단들은 내부적으로 분화되면서 소속된 사찰들이 신행활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즉 전통적 신행활동인 기도법회 중심에서 설법 중심의 법회형식도 도입되었다.

기도법회는 초하루, 보름, 각종 재일에 정기적으로 봉행되는 신행활동이며, 이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다만 부처님 재세시에는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듣는 방식이었다면 대승불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부처님과 제불보살을 찬탄하고 공양을 올리는 의식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전통적인 법회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법회의 경향을 수용하는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요법회 혹은 주간의 야간법회를 도입하고 있으며, 의식 중심의 기도법회와 설법 중심의 신행법회를 구분하는 사찰도 나타났다. 초하루와 같은 전통법회를 봉행하면서 동시에 일요법회 등 주간 단위 혹은 월간 단위의 정기법회를 새롭게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법회에 변화를 준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 서울 불광사이다. 불광사는 1974년 불광법회를 창립하면서 일찍부터 일요법회를 봉행하였으며 신도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모범적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불광사는 수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중의 체계와 재가불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불광법회가 법륜의 두 바퀴가 되어 도심포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광사는 사찰 운영의 대부분을 신도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신도들 스스로 바라밀회를 조직하고 사찰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새로운 사찰운영방법을 채택하였다. 불광법회는 바라밀운동을 신행활동의 근간으로 정착하였으며 재가불자들은 바라밀 조직으로 지역과 직능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안국선원은 신행활동의 시스템 자체를 수행중심으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찰이다. 안국선원은 1989

년 "조계종의 종지 중흥에 의거하여 인류의 마음에 진리의 의침이 울리게 하고, 세계만방에 지혜의 눈을 밝히는 선의 범세계화로 만민평등의 세계일화라는 우주법계에 꽃피우는데 일조한다"는 실천이념을 가지고 문을 열었다. 매일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안국선원은 순수한 수행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최근 신행활동의 한 축으로 등장한 것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는 전국의 100여개 사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자들에게는 새로운 신행 체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전남 해남의 땅골 마을에 위치한 미황사는 매우 궁벽진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참사람의 향기라는 7박8일의 집중 템플스테이로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불교대학, 신도 교육 이끌다

사찰 중심의 신행활동에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불교대학의 운영이다. 불교계 최초의 불교대학은 서울 남산에 위치한 대한회에서 운영하였던 대한불교대학이 그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불교대학은 1973년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한불교강원으로 출발하였으며, 1981년에 불교대학으로 명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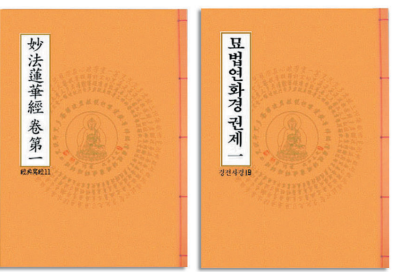
※ 법화경·사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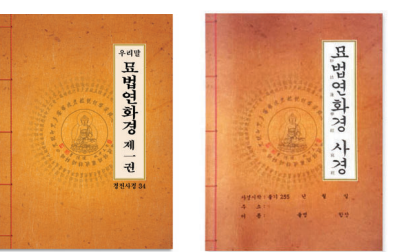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가 5,000원(1권)
※간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 영가옷·예수재용품 ※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남영가옷 정가 1,000원 동녀영가옷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 A (50개1박스)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라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신행

한국불교
신행 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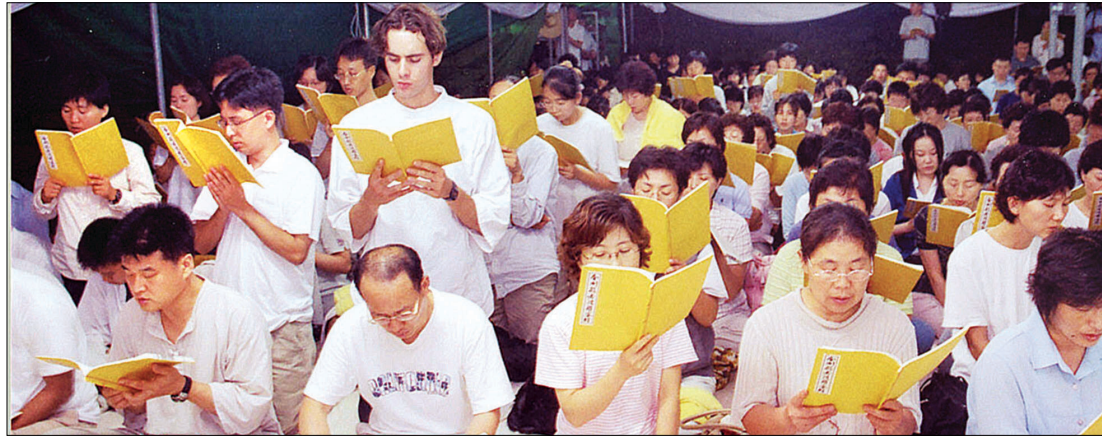
시대 맞춤형 신행 운동 전개



100여개 사찰에서 진행중인 템플스테이는 불자들에게 새로운 신행문화로 자리잡았다.



대원불교대학 입학식. 대원불교대학은 최초의 불교대학이다. 이 같은 불교대학은 교육화된 신도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금강경 독송회 회원들이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다. 간경, 염불 등 다양한 수행법을 중심으로 한 독립된 재가 신행단체가 만들어진 것도 한국 불교 신행 역사의 큰 특징 중 하나다.

변경하였다. 그리고 미국 LA와 부산 등에서도 불교 대학을 운영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였다. 대원불교대학은 8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신도교육의 붐을 일으키는데 성공사례로서 일조하였다.

교양대학 형태의 불교교육은 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조직화, 그리고 봉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신행활동의 체계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초기의 신도교육은 사찰 내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치거나 경전을 공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입문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재교육의 체계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 교재를 개발하면서 질적 양적으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포교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주요 사찰에서 불교대학 운영을 추진시켰다. 그 결과 전국의 주요 교구 본사와 수발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신도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찰의 신도교육은 불자들을 더 이상 신앙에만 머물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체득하고 바르게 실천하도록 이끌었다. 불교대학은 사찰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역포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산사는 1989년 전주 시내에 화엄불교대학을 개설하여 도심포교의 거점 도량으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불교대학이 기존의 전통사찰 내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속초신승사는 도심의 원각사포교당에 불교

대학을 개설하였고, 월정사는 강릉과 원주, 동해 등에 불교대학을 개설하였다.

불교대학은 불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심도 있는 경전교육과 조직적인 신행활동의 모범을 만들고 있다. 사찰별로 배출된 불교대학 졸업생들은 기수별 모임을 갖고 있으면서 조직화된 힘으로 지역사회 포교에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교대학 졸업자들 중에서는 포교사로서에 응시하여 포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신도교육이 전문적인 포교활동으로 신행활동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순례·독송으로 확대되는 신행

사찰 신행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단체는 선목해 자스님이 이끌어 가는 '108산사순례단'이다. 이 순례단은 2006년 통도사 순례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사찰을 방문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약 5천여 명이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순례단은 방문 사찰이 위치한 농촌에서 농산물을 구입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장병에 대한 공양, 장학금 지급, 효행상 시상, 다문화가정 인연 맺기 등의 대사회적 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50여 곳에서 '108산사순례회'를 결성해 정기적으로 순례에 나설 정도로 순례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사찰순례 혹은 성지순례로 이어지는 신행문화는

각 사찰에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108사찰순례단의 활동은 기존의 단순한 성지순례의 개념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소극적인 신행활동에 익숙해져 있는 불자들에게서 새롭고 역동적인 실천방법이 이끌어 내었다.

봉은사는 수천 명이 동참하여 신묘장구대다라니와 42수 진언을 독송하는 관음신행을 정착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신행문화는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같은 시기에 조계사에서는 금강경 독송을 중심으로 하는 신행문화가 정착되었고 42개월의 진언수행을 마친 봉은사에서 금강경 독송에 참여하고 있다.

사찰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지역별로 활동하는 신도조직의 활성화는 신행문화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현재 각 종단별로 전국단위와 지역단위, 그리고 사찰별 신도조직을 결성하고 조직화에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에서는 중앙신도회가 포교원 산하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각 교구별 신도회가 24개 교구본사에 조직되고 있다. 중앙신도회 산하의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은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행복바라미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모금활동은 이웃 종교에 비해 침체되어 있던 모금활동 분야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재가자들의 독립된 신행단체

단위 사찰의 범주를 넘어서서 재가불자들이 독창

적이고 주제적으로 만들어진 신행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재가불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신행단체들을 분석해보면 간경, 간화선, 위빠사나, 염불, 문사수 법회 등과 같이 여러 영역에서 광활한 사재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간경을 신행활동의 하나로 정착시킨 단체는 1962년 출범한 '금강경독송회'이다. 백성욱박사의 주도로 시작된 금강경독송회는 금강경 간경을 통해서 분별심을 제거하고 해탈과 열반을 체득하는 생활수행법을 제시하였다. 이 단체 회원들의 신행방법은 매일 금강경을 7회 독송하고, 미륵존여래불을 1시간 동안 염하며 마음을 바치는 정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초심자들의 경우 100일 단위로 정진하여 점진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깨우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김재웅법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강경독송회는 1973년 포항 금강정사에서 출범하였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청우불교원을 중심으로 21개 법당 및 법회가 운영되고 있다.

간화선 중심의 참선단체로는 1965년 백봉 김기추 거사에 의해 시작된 보림회가 있다. 보림회는 "어지러운 세정(世情) 속에서 내일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인생의 원리와 누리의 본체를 깨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거사공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백봉거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상 법신이 유상 색신을 굴린다."는 새말귀 화두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허공으로서의 '나'인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969년 충남 유성에서 보림선원을 개원한 이후 보림회는 각 지역에 분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1985년 백봉거사의 입적 후에는 제자들에게 의해서 서울, 부산, 산청, 청원 등지에서 보림선원을 운영하며 재가불자 중심의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림회는 일찍부터 모든 의식을 한글화하고, 재가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화두의 현대적 해석으로 시대적 적실성을 높였다.

염불수행단체인 문사수법회는 1988년 김태영법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법회 모임은 "문·사·수"의 세 가지 지혜를 공부하여 스스로의 삶을 자각하고, 마침내 자신의 참 생명의 가치를 깨우쳐서 맑고 맑은 나날을 창조"하기 위한 신행방법을 제시하였다. 1993년부터 본격적인 대중법회를 개설하고 수행도량 정진원을 개설하면서 독자적인 포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중앙전법원, 대전전법원, 담양의 정토사 등의 포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1992년 천안에 부지를 확보한 호두마을은 "위빠사나 명상법을 국내에 보급 전파하여 일체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고 해탈의 길을 찾기 위하여 설립"된 수행단체에 속한다. 이 단체는 "모든 불자들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청정한 수행 공간"을 지향하는데 주말 위빠사나 수련회 및 집중수련회 중심으로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호두마을은 2002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매년 미얀마의 사야도를 초청하여 집중수행을 지도한다.

법기선원은 1994년 서울대학교 불교수행모임인

선우회가 법기 강진진 거사에 가르침을 들으면서 출범하였다. 법기선원은 "황폐화된 현 수행불교 속에서 정법수호와 정법선양을 목적으로" 개원한 재가불자 수행센터이다. 현재 법기선원은 서울과 부산에서 수행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법기사의 신행방법은 마음관찰법, 판법과 염불, 기초교리와 호흡법, 점진 등의 내용을 지도하며, 매월 1회 정기법회를 통해서 무기와 번뇌의 대치, 관(觀)과 염(念)의 동시 수행, 결인관, 호흡관, 설관 등의 판법, 염념상속법과 의심법의 염법(念法) 등을 가르치고 있다.

기존의 염불, 참선 및 위빠사나, 간경 중심의 신행단체와는 별개로 학술 중심의 신행단체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불교학술연구 단체로는 한국불교연구원을 꼽을 수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1974년 이기영박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재가불교 중심의 불교학술 및 신행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이 단체는 국내의 학술연구를 주도하면서 불교학술지 <불교연구>를 발행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의 거점 도시에 전국구도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의료봉사 모임인 무량감로회를 통해 자비실천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신행 프로그램 개발해야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각 사찰과 종단의 체계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찰이나 종단에서 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신행활동은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과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한국불교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찰 중심의 신행활동과 단체 중심의 신행활동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참선, 간경, 기도, 법회, 의식 등과 같은 전통적인 활동이 토대가 되지만 기존의 전통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 전통에 안주하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불자들이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도하지 못하면 불교계의 위축과 퇴조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사찰 신도들의 적극적인 신행활동 참여와 더불어 불자들의 새로운 신행활동의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신행활동 분야는 문화운동과 상담 및 명상 분야이다. 현재 한국불교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포교 방법이 전통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명상을 기반한 서양의 MBTI의 보급과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빠사나 수행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불교문화를 토대로 하면서 육근을 청정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문화운동이 삶 생활 속에서 실천될 때 한국불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고통을 치유해줄 수 있는 상담과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행활동 주제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향후 불교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 지역에 불교 문화원을 건립하고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고 봉사하는 신행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안정신에 입각해 혼을 풀어놓은 조성. 대덕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교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JJUN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사찰 및 임차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지역 대리점: 서울 010-5097-8291, 평창 010-6433-8612, 진주 010-3583-7139, 익산 010-6610-2337, 수원 010-5211-7260, 양산 010-6294-6126, 울산 010-4597-5577, 여수 010-3612-7784, 남주 010-9183-9729, 김천 010-9091-4583, 새창 010-6890-0365, 고성 010-4578-0961